

2 선진 금융기관의 거대화 전략

- (현황 및 배경)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 금융기관들은 인수·합병을 통해 초대형화를 모색하고 있음. 이는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에 대응한 자국 시장의 방어와 세계 시장 지배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
- (전망) 상이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시 기존의 감독·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및 경영 목표상의 마찰, 시스템상의 이질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우량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M&A와 대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(시사점) 국내 금융기관들은 선진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국내 시장 공략에 대비하여 우량 금융기관간 M&A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

□ 최근 인수·합병 현황

- (미국) 씨티코프·트레블러스 합병(자산: 7천억 달러) 발표 이후, 내이션스뱅크와 뱅크아메리카(자산: 5,700억 달러), 뱅크원과 퍼스트 시카고NBD(자산: 2,300억 달러)가 연이어 합병 발표를 하는 등 거대은행간의 통합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음
- (유럽) 97년말 스위스의 UBS와 SBC(자산: 6,630억 달러)가 합병하여 유럽 최대은행을 탄생시켰고, 독일의 도이치방크는 최근 프랑스 보험사AXA와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모건 등을 상대로 합병을 모색하고 있음
- (일본) 금융산업내의 업종 구분이 점차 악화되면서 최근 산와(三和)은행이 야마이치증권의 한 투신사를, GE캐피탈이 도호(東方)생명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M&A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

□ 배경

- (지역시장 방어) 거대화 전략의 주된 배경은 지구촌 단일 시장에서 자국금융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
 - 미국의 경우 은행, 보험, 증권등 업종 분리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, 유럽은 단일 통화, 일본은 빅뱅크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

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

- (규모의 경제와 유니버설 बैं킹)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M&A가 활발함.
- 즉, 은행, 증권, 보험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유니버설 बैं킹을 추구하는 추세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합병을 촉발하고 있음
- 미국의 씨티코프와 트래블러스그룹의 합병도 은행, 신용카드, 보험에서 뮤추얼 펀드 가입 등 모든 금융업을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"원스톱 서비스"에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
-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씨티코프는 트래블러스를 통해 자본시장에 진출하며, 트래블러스는 씨티코프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의 확대를 도모할 목적도 있음

< 세계 금융 시장의 발전과 M&A의 추이 >

금융 시 장	왕조 중심시대 - 모건 - 로스차일드 - 워버그 - 록펠러	기업 중심시대 - 고객이 주도 - 정부의 지원		금융시장 중심시대 - 본격적인 금융 거래 - 금융 중심지 등장		상품/기술중심시대 - 거래 방식과 기술의 조화 - 신상품개발 급성장 - 지역 시장에 쏠림	
		수직결합 일관생산체제 확보	복합화 사업다각화	적대적 M&A 시장에서 매매차익 획득		전략적M&A 시장지배력 확대	
M & A	1850	1920	1940	1960	1975	1980	1990

□ 전망 및 파급효과

- 상이한 금융기관간의 합병시 기존의 감독·규제뿐만 아니라 문화 및 경영 목표상의 마찰, 시스템상의 이질성으로 인해 합병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단언할 수 없으나 최소한 우량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M&A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(유럽) 미국 은행들의 거대화 전략에 영향을 받아 99년초로 예정된 단일통화체제 출범을 앞두고, 국경을 넘어 금융기관간 M&A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
- 예를 들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, 독일의 도이체 뱅크, 영국의 바클레이스(BCS), 넷웨스트(NatWest) 등이 초대형 유럽은행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

- 특히, 중간 규모의 지역은행들간에 M&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
- **(일본)**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M&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
 - 산와(三和), 도요(東洋), 주오(中央)은행 등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미국의 메릴린치 등 선진국 은행들과 과감한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

□ 시사점

- **(세계금융시장에서의 대형화 및 특화 경쟁 지속)**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대형화 추세는 시장지배력 확보 경쟁 차원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 -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합병을 모색하거나 특정 부문에 특화하는 전략을 강구하게 될 것임
 - 이미 일본이나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미국에 대항해 대규모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 이번 합병이 이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
- **(국내 우량 금융기관간 M&A로 경쟁력 확보 결실)** 우리 나라에서도 우량 금융기관간 과감한 흡수·합병을 통해 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
 -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던 미국계 금융기관들의 합병은 유럽계와 아시아계 금융기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
 - 국내 금융기관들이 최소한 국내시장에서만은 비교우위를 잃지 않도록 우량 국내 금융기관간 M&A를 통해 대형화를 피하든지, 구조조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시급히 탈바꿈을 하여야 할 것임
- **(금융지주회사 허용 필요)** 우리 나라도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여러 개의 은행, 보험, 증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 - 국내 금융기관들이 '원스톱 서비스'가 가능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임
 - 이제는 경제력 집중 문제보다는, 수익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장 경쟁원리를 우려해야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임

(김 회 성 hiskim@hri.co.kr ☎724-4020)